

# 계층화분석(AHP)기법을 활용한 제주해녀춤의 문화브랜드화 방안 연구

양진숙\*\* 순천향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해녀춤의 브랜드화를 위한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향후 제주해녀춤의 올바른 보전과 전승을 위한 문화브랜드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제주해녀춤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Delphi)조사를 실시하여 제주해녀춤의 문화브랜드화 요인을 추출하였고, 계층화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기법을 적용하여 각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0.0, AMOS 24 및 Expert Choice 11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해녀춤의 문화브랜드화 방안의 요인은 대분류 5가지(제주해녀춤의 가치인식 내용·가치인식 대상·제주해녀춤의 기초연구·제주해녀춤의 브랜드구축·제주해녀춤의 제도적개선)와 중분류 21가지(가치인식 내용 4개 요인, 가치인식 대상 4개 요인, 기초연구 4개 요인, 브랜드구축 4개 요인, 제도적 개선 5개 요인)로 구분되었다. 둘째, 제주해녀춤의 문화브랜드화 방안 대분류의 우선순위는 제주해녀춤의 브랜드구축이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1순위를 차지했으며, 제주해녀춤의 가치인식 내용, 해녀춤의 기초연구, 해녀춤의 가치인식 대상, 해녀춤의 제도적 개선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주해녀춤의 문화브랜드화 방안의 중분류의 우선순위는 새롭고 다양한 공연브랜드 개발, 여성공동체 문화, 전통문화, 살아있는 해녀문화, 해녀굿·노래를 통한 원형연구, 해외 벤치마킹, 조형물·로고 제작, 제주 각 지역별 해녀춤 DB 구축 등의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해녀춤은 무용전문인들만의 춤이 아닌 제주해녀를 포함한 제주여성의 춤으로 확대하여 제주를 대표하는 새로운 공연브랜드 개발에 주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AHP, 제주해녀춤, 문화브랜드, Delphi

## I. 서론

2016년 11월 30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제11차 UNESCO(이하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에서 제주해녀문화가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 잠녀(潛女) 혹은 잠수(潛嫂)라고도 불리는 해녀(海女)는 아무런 장비도 없이 바닷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채취하는 여성을 일컫는다. 기원전 약 2000년 전 제주의 역사와 함께 출발한 제주해녀는 단순히 물질을 하는 직업여성이 아닌 해녀와 관련된 기술, 지식, 의례 등의 문화를 통합하고 있는 주체이며, 그들의 노래와 춤은 하와이의 훌라, 발리의 케차크 등과 같이 지역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라 할 수 있다. 제주해녀춤은 해녀굿·해녀노젓는소리와 역사적 전통을 함께 하는 제주 특유의 민속춤으로 2013년 향토무형유산 제8호 제주 창작무로 지정되어 제주의 춤으로 보존이 되고 있다. 1964년 송근우가 전국민속경연대회를 위해 창작한 해녀춤을 필두로 무대 양식화된 제주해녀춤은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녀춤의 원형 부재와 무관심으로 인해 유네스코 해녀문화요소에

\* 본 연구는 양진숙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jsyang0307@yahoo.com

포함되지 못했다. 제주해녀춤의 형태적인 원형으로 알려진 송근우의 해녀춤 또한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기보다는 안무자와 공연 목적에 맞추어 재창작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제주해녀춤의 실질적 원형이라 볼 수 있는 해녀굿 씨드림의 경우는 아직도 동김녕리에서 원형을 유지하며 진행 되고 있으며, 해녀노젓는소리의 노젓는 동작과 발 구르는 동작도 현재까지 꾸준히 전승이 되어 오고 있다. 이와같이 제주해녀춤의 범위를 송근우의 해녀춤과 더불어 제주 전역에 퍼져 있는 해녀굿·해녀노젓는소리까지 넓혀 제주해녀춤의 문화브랜드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무용계에서 다뤄진 문화브랜드화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춤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브랜드화 방안(백현순, 2015; 손수지, 2017; 조남규, 2010), 춤의 대중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문화브랜드 방안(김충한, 2011; 임영순, 맹해양, 배기형, 2016; 최일도, 신윤진, 조성운, 2012), 작품 분석을 통한 문화브랜드화 성공요인과 발전방안 모색(이경미, 2015; 이송, 2007; 임상우, 2010; 정길만, 2013) 등으로 진행되었으나, 주로 문헌연구와 작품 분석 위주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심층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되지 못한 제한점을 드러내며 연구방법에 대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과는 차별적으로 무용전문가집단·문화예술전문가집단·해녀집단의 Delphi와 AHP분석을 진행하여 제주해녀춤의 문화브랜드화 방안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제주해녀춤에 대한 가치인식과 정체성을 재점검하여 제주해녀문화에 속해 있는 제주해녀춤의 문화브랜드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제주해녀춤의 올바른 보전과 전승을 위한 문화브랜드화 방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제주해녀춤의 문화브랜드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제주해녀춤과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제주해녀춤의 발전과 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연구 참여자로 하였다. 제주해녀문화의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문화예술전문가들, 제주해녀춤 보유자 외 제주해녀춤에 주 관심을 두고 있는 무용전문가들 그리고 직접 물질 경험이 풍부한 해녀분들을 집단별로 각 15명씩 총 45명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45)

구분	변인	문화예술전문가	무용전문가	해녀	계
성별	남	10(66.7%)	2(13.3%)	0	12(26.7%)
	여	5(33.3%)	13(86.7%)	15(100%)	33(73.3%)
나이	40대	8(53.3%)	4(26.7%)	0	12(26.7%)
	50대	7(46.7%)	8(53.3%)	5(33.3%)	20(44.4%)
	60대 이상	0	3(20)	10(66.6%)	13(28.8%)
경력	20년 이상	11(73.3%)	5(33.3%)	0	16(35.6%)
	30년 이상	4(26.7%)	7(46.7%)	3(20%)	14(31.1%)
	40년 이상	0	3(20%)	6(40%)	9(20%)
	50년 이상	0	0	6(40%)	6(13.3%)
	중졸	0	0	4(26.7%)	4(8.9%)

구분	변인	문화예술전문가	무용전문가	해녀	계
학력	고졸	0	0	11(73.3%)	11(24.4%)
	전문대졸	0	9(60%)	0	9(20%)
	대졸	2(13.3%)	2(13.3%)	0	4(8.9%)
	대학원 이상	13(86.7%)	4(26.7%)	0	17(37.8%)
계		15(100%)	15(100%)	15(100%)	45(100%)

〈표 1〉에서 나타난 문화예술전문가집단(이하 문화집단)의 성별은 남자 66.7%, 여자 33.3%, 무용전문가집단(이하 무용집단)은 남자 13.3%, 여자 86.7%, 그리고 해녀집단은 여자 100%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나이의 경우 문화집단 40대 53.3%, 무용집단 50대 53.3%, 해녀집단 60대 이상이 6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경력의 경우 문화집단은 20년 이상 73.3%, 무용집단 30년 이상 46.7%, 해녀집단 40년 이상과 50년 이상이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학력의 경우 문화집단은 대학원 이상 86.7%, 무용집단 전문대졸 60%, 해녀집단 고졸 73.3%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과 측정항목을 설정하기 위해 Delphi 기법을 활용하였다. 설문을 하기 전 문화예술 전문가 2명, 무용전문가 2명 그리고 통계 전문가 1명의 자문을 통해 예비조사과정을 거친 후 연구문제를 선정 하였고 그 후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전문가 집단 45명에게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다. 1차 설문을 통해 수집된 전문가 집단의 응답은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의견이 충실히 반영 되도록 범주별로 코딩(Coding)화 작업을 진행하고 유사 문항에 대한 통합 및 제거작업을 실시한 후 구조화된 Likert 5점 척도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1차 설문에 참여했던 동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을 통한 2차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Delphi 기법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AHP기법을 활용하여 대분류 5개(제주해녀춤의 가치인식 내용·가치인식 대상·제주해녀춤의 기초연구·제주해녀춤의 브랜드구축·제주해녀춤의 제도적개선), 중분류 21개의 최종 구성요소를 확정하였다.

## 3. 자료처리

본 연구의 결과 도출을 위해 SPSS 20.0, AMOS 24 및 Expert Choice 1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할 수 있는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분석방법을 수행하였다. 제1종 오류를 범할 수준  $\alpha$  는 .05에 설정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제주해녀춤의 문화브랜드화 방안에 대한 계층 분류

제주해녀춤의 문화브랜드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45명의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델파이 설문 및 AHP를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해녀춤의 가치인식 내용, 해녀춤의 가치인식 대상, 해녀춤의 기초연구, 해녀춤의 브랜드구축, 해녀춤의 제도적개선의 총 5개 요인의 대분류와 21개 요인의 중분류로 구성되었다.

표 2. 제주해녀춤의 문화브랜드화 방안에 대한 계층 분류

대분류		중분류
제주 해녀 춤의 문화 브랜드 화 방안	해녀춤의 가치인식 내용	물질문화(작업기술·도구·옷 등)
		전통문화(굿·의례·노래 등)
		여성공동체 문화(의식·규범·놀이 등)
	해녀춤의 가치인식 대상	살아있는 해녀문화
		전문가들과의 진솔한 소통
		해녀들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
		지역주민을 위한 공감대 형성
	해녀춤의 기초 연구	외부 관광객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해녀살을 통한 기본체계 연구
		해녀굿·노래를 통한 원형 연구
		타분야(인류학·민속학 등)와의 융합
	해녀춤의 브랜드 구축	제주 각 지역별 해녀춤 DB 구축
		기존 해녀춤 명칭 변경
		새롭고 다양한 공연 브랜드 개발
		해외 벤치마킹
해녀춤의 제도적 개선	조형물·로고 제작	
	협회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전용극장 및 정기공연 추진	
	지속적인 예산지원	
	도지정 문화재 추진	
		보유자 및 전수자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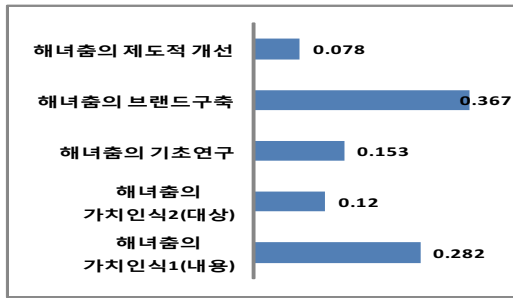
2. 제주해녀춤의 문화브랜드화 방안을 위한 중요도와 우선순위

1) 제주해녀춤의 평가지표(대분류) 간 중요도와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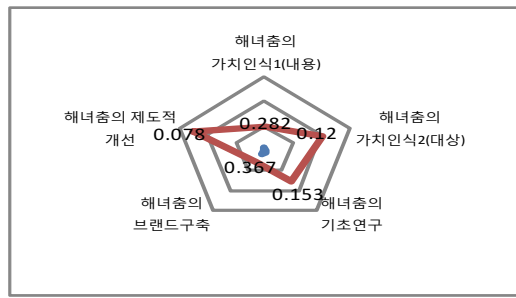
제주해녀춤의 대분류 간 분석결과는 다음 <표 3>, <그림 1, 2>와 같다. 평가영역(대분류)의 우선순위는 해녀춤의 브랜드구축(중요도=0.367), 해녀춤의 가치인식1 내용(중요도=0.282), 해녀춤의 기초연구(중요도=0.153), 해녀춤의 가치인식2 대상(중요도=0.12), 해녀춤의 제도적개선(중요도=0.078)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해녀춤의 평가지표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평가영역(대분류)별 우선순위와 중요도 분석에 있어서, 쌍대비교의 신뢰성을 파악하고 전문가 집단의 정확한 응답정도를 확인하는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CI) 값은 0.02로 분석되어 양호한 쌍대비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 제주해녀춤의 평가지표(대분류) 우선순위 및 중요도

항목	가치인식내용	가치인식대상	기초연구	브랜드구축	제도적개선	중요도	순위	
해녀춤의 가치인식내용	1	3.4006	1.160288	1.45902	3.20248	0.282	2	
해녀춤의 가치인식대상		1	1.14938	2.61207	1.2099	0.12	4	
해녀춤의 기초연구			1	2.03598	2.13685	0.153	3	
해녀춤의 브랜드구축				1	5.97508	0.367	1	
해녀춤의 제도적개선					1	0.078	5	
CI≤.1							.02	



[그림 1] 대분류 상대적 중요도 그래프



[그림 2] 대분류 상대적 중요도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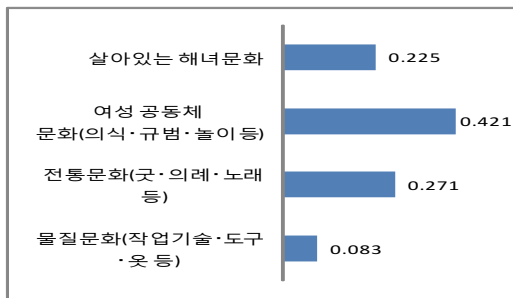
2) 중분류 간 중요도와 우선순위

(1) 해녀춤의 가치인식내용에 대한 평가요인 별 중요도와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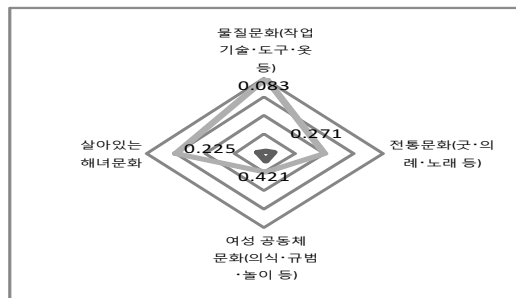
제주해녀춤의 가치인식내용 분석결과는 <표 4>, <그림 3, 4>와 같다. 해녀춤의 가치인식내용의 우선순위는 여성공동체 문화(의식·규범·놀이 등)가 중요도 0.421점을 나타내며 1순위를 차지하였고 그 뒤로 전통문화(굿·의례·노래 등, 중요도=0.271), 살아있는 해녀문화(중요도=0.225), 물질문화(작업기술·도구·옷 등, 중요도=0.083)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CI) 값은 0.05로 분석되어 양호한 쌍대비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 제주해녀춤의 가치인식내용 우선순위 및 중요도

항목	물질문화	전통문화	여성공동체문화	살아있는 해녀문화	중요도	순위
물질문화(작업기술·도구·옷 등)	1	2.87002	3.66997	4.40102	0.083	4
전통문화(굿·의례·노래 등)		1	1.54571	1.49917	0.271	2
여성공동체 문화(의식·규범·놀이 등)			1	2.63706	0.421	1
살아있는 해녀문화				1	0.225	3
CI≤.1			.05			



[그림 3] 가치인식내용 상대적 중요도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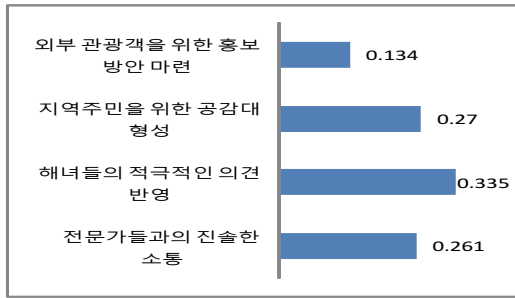
[그림 4] 가치인식내용 상대적 중요도 도식

(2) 해녀춤의 가치인식대상에 대한 평가요인 별 중요도와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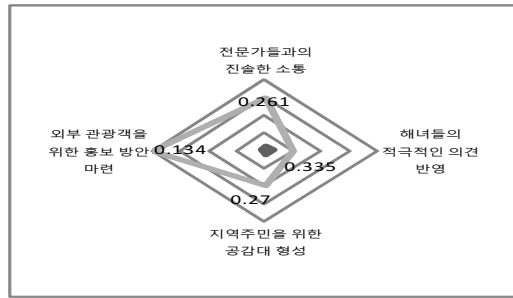
제주해녀춤의 가치인식대상 분석결과는 <표 5>, <그림 5, 6>과 같다. 해녀춤의 가치인식대상의 우선순위는 해녀들의 적극적인 의견반영(중요도=0.335), 지역주민을 위한 공감대 형성(중요도=0.27), 전문가들과의 진솔한 소통(중요도=0.261), 외부 관광객을 위한 홍보방안 마련(중요도=0.134)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CI) 값은 0.09로 분석되어 양호한 쌍대비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5. 제주해녀춤의 가치인식대상 우선순위 및 중요도

항목	전문가	해녀	지역주민	외부관광객	중요도	순위
전문가들과의 진솔한 소통	1	2.87002	3.66997	4.40102	0.261	3
해녀들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		1	1.54571	1.49917	0.335	1
지역주민을 위한 공감대 형성			1	2.63706	0.27	2
외부 관광객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1	0.134	4
CI≤.1						.09



[그림 5] 가치인식대상 상대적 중요도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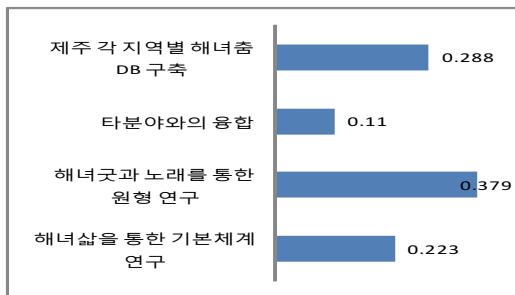
[그림 6] 가치인식대상 상대적 중요도 도식

(3) 해녀춤의 기초연구에 대한 평가요인 별 중요도와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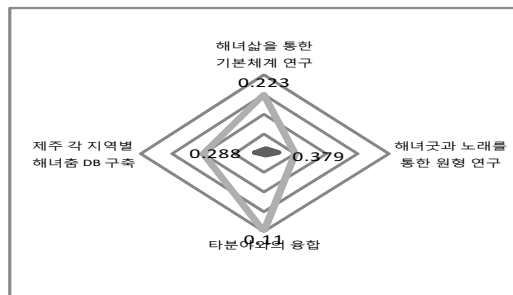
제주해녀춤의 기초연구 분석결과는 <표 6>, <그림 7, 8>과 같다. 해녀춤의 기초연구의 우선순위는 해녀굿·노래를 통한 원형 연구(중요도=0.379), 제주 각 지역별 해녀춤 DB 구축(중요도=0.288), 해녀 삶을 통한 기본 체계 연구(중요도=0.223), 타분야(인류학·민속학 등)와의 융합(중요도=0.11)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CI) 값은 0.07로 분석되어 양호한 쌍대비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6. 제주해녀춤의 기초연구 우선순위 및 중요도

항목	해녀 삶 기본체계	해녀굿·노래 원형	타분야 융합	각 지역DB	중요도	순위
해녀 삶을 통한 기본체계 연구	1	1.29785	2.60106	2.26368	0.223	3
해녀굿노래를 통한 원형 연구		1	3.24419	1.92666	0.379	1
타분야(인류학·민속학)와의 융합			1	1.9484	0.11	4
제주 각 지역별 해녀춤 DB구축				1	0.288	2
CI≤.1						.07



[그림 7] 기초연구 상대적 중요도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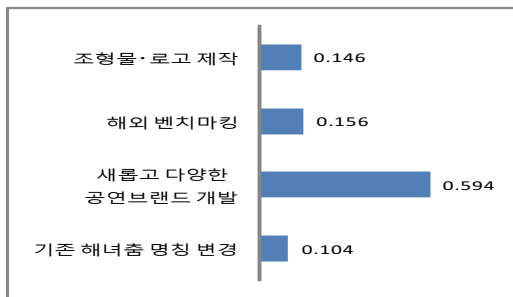
[그림 8] 기초연구 상대적 중요도 도식

(4) 해녀춤의 브랜드구축에 대한 평가요인 별 중요도와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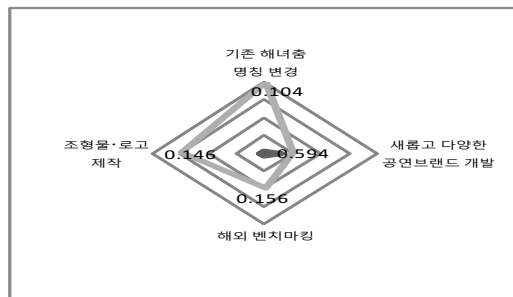
제주해녀춤의 브랜드구축 분석결과는 <표 7>, <그림 9, 10>과 같다. 해녀춤의 브랜드구축의 우선순위는 새롭고 다양한 공연브랜드 개발(중요도=0.594), 해외 벤치마킹(중요도=0.156), 조형물·로고 제작(중요도=0.146), 기존 해녀춤 명칭 변경(중요도=0.104)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CI) 값은 0.01로 분석되어 양호한 쌍대비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7. 제주해녀춤의 브랜드구축 우선순위 및 중요도

항목	명칭 변경	다양한 공연개발	해외벤치마킹	조형물로고제작	중요도	순위
기존 해녀춤 명칭 변경	1	4.80855	1.48171	1.69277	0.104	4
새롭고 다양한 공연브랜드 개발		1	4.3846	4.23014	0.594	1
해외 벤치마킹			1	1.25171	0.156	2
조형물·로고 제작				1	0.146	3
CI≤.1			.01			



[그림 9] 브랜드구축 상대적 중요도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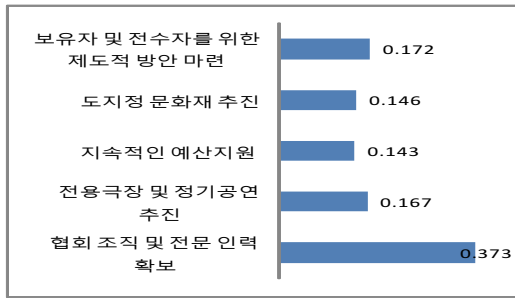
[그림 10] 브랜드구축 상대적 중요도 도식

(5) 해녀춤의 제도적 개선에 대한 평가요인 별 중요도와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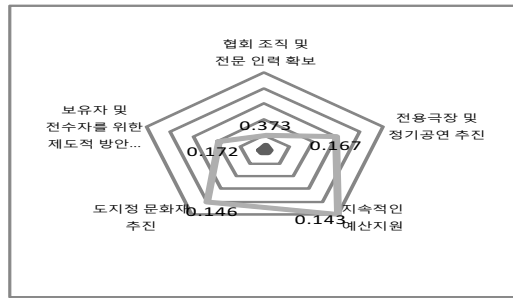
제주해녀춤의 제도적개선 분석결과는 <표 8>, <그림 11, 12>와 같다. 해녀춤의 제도적개선의 우선순위는 협회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중요도=0.373), 보유자 및 전수자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중요도=0.172), 전용극장 및 정기공연 추진(중요도=0.167), 도지정 문화재 추진(중요도=0.146), 지속적인 예산지원(중요도=0.143)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CI) 값은 0.08로 분석되어 양호한 쌍대비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8. 제주해녀춤의 제도적개선 우선순위 및 중요도

항목	전문인력	전용극장	예산지원	문화재추진	전수자 제도	중요도	순위
협회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1	3.85	1.8	1.38	3.087	0.373	1
전용극장 및 정기공연 추진		1	1.05	2.58	1.436	0.167	3
지속적인예산지원			1	1.15	1.505	0.143	5
도지정문화재추진				1	1.227	0.146	4
보유자/전수자 제도적방안 마련					1	0.172	2
CI≤.1			.08				



[그림 11] 제도적개선 상대적 중요도 그래프



[그림 12] 제도적개선 상대적 중요도 도식

### 3) 전체 우선순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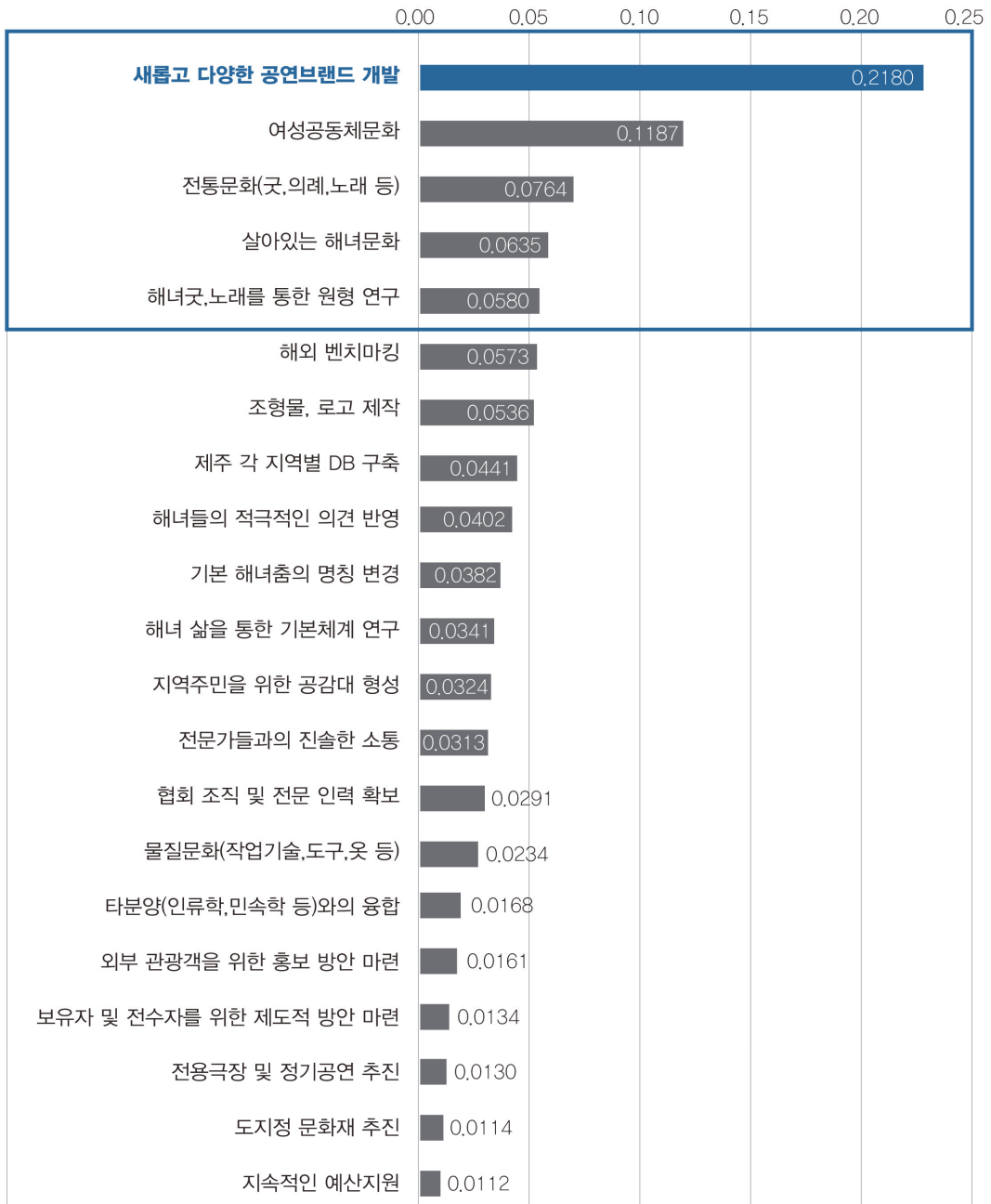
제주해녀춤의 전체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9>, <그림 13>과 같다. 제주해녀춤에 관련한 전문가패널을 대상으로 제주해녀춤의 보전과 전승을 위한 문화브랜드화 방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해 보았더니 해녀춤의 가치인식내용, 해녀춤의 가치인식대상, 해녀춤의 기초연구, 해녀춤의 브랜드구축, 해녀춤의 제도적개선 가운데 해녀춤의 브랜드구축이 36.7%를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중분류간 중요도 평가에서 해녀춤의 가치인식 내용에서는 물질문화, 전통문화, 여성공동체문화, 살아있는 해녀문화 중 여성 공동체 문화(의식·규범·놀이 등)가 42.1%로 평가되었으며, 해녀춤의 가치인식 대상에서는 해녀들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이 33.5%로 평가되었다. 해녀춤의 기초연구 부분에서는 해녀굿과 노래등을 통한 원형 연구가 37.9%의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해녀춤의 브랜드구축에서는 새롭고 다양한 공연브랜드 개발이 59.4%로 나타나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해녀춤의 제도적개선 부분에서는 협회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가 37.3%의 중요도를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제주해녀춤의 문화브랜드화 방안 AHP 분석결과표

대분류	중요도	하부 기준	중요도	총 가중치	우선 순위
해녀춤의 가치인식1 (내용)	0.282	물질문화(작업기술·도구·옷 등)	0.083	0.0234	15
		전통문화(굿·의례·노래 등)	0.271	0.0764	3
		여성공동체문화(의식·규범·놀이 등)	0.421	0.1187	2
		살아있는 해녀문화	0.225	0.0635	4
해녀춤의 가치인식2 (대상)	0.12	전문가들과의 진솔한 소통	0.261	0.0313	13
		해녀들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	0.335	0.0402	9
		지역주민을 위한 공감대 형성	0.27	0.0324	12
		외부 관광객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0.134	0.0161	17
해녀춤의 기초연구	0.153	해녀 삶을 통한 기본체계 연구	0.223	0.0341	11
		해녀굿노래를 통한 원형 연구	0.379	0.0580	5
		타분야(인류학·민속학등)와의 융합	0.11	0.0168	16
		제주 각 지역별 해녀춤 DB 구축	0.288	0.0441	8
해녀춤의 브랜드구축	0.367	기존 해녀춤 명칭 변경	0.104	0.0382	10
		새롭고 다양한 공연브랜드 개발	0.594	0.2180	1
		해외 벤치마킹	0.156	0.0573	6
		조형물·로고 제작	0.146	0.0536	7
해녀춤의 제도적개선	0.078	협회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0.373	0.0291	14
		전용극장 및 정기공연 추진	0.167	0.0130	19
		지속적인예산지원	0.143	0.0112	21
		도지정문화재추진	0.146	0.0114	20
		보유자 및 전수자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0.172	0.0134	18



## 제주해녀춤의 문화브랜드화 방안 종합 우선순위



[그림 13] 제주해녀춤의 문화브랜드화 방안 종합 우선순위

종합적인 우선순위는 브랜드구축의 '새롭고 다양한 공연브랜드 개발'이 1위, 가치인식 내용의 '여성공동체 문화' 2위, 가치인식 내용의 '전통문화(굿·의례·노래 등)' 3위, 가치인식 내용의 '살아있는 해녀문화' 4위, 기초

연구의 '해녀굿·노래를 통한 원형연구'가 5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선순위 중 하위의 평가지표 항목을 살펴보면 제도적개선의 '지속적인 예산지원' 21위, 제도적개선의 '도지정 문화재 추진' 20위, 제도적개선의 '전용극장 및 정기공연 추진' 19위, 제도적개선의 '보유자 및 전수자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18위, 가치인식 대상의 '외부관광객을 위한 홍보마련'이 17위로 나타났다. 특히, 총 21개의 평가지표들 가운데 상위 5위안에 드는 지표들의 분포적 특성을 볼 때, '새롭고 다양한 공연브랜드 개발'의 브랜드구축 부분과 '여성공동체 문화'의 가치인식 내용 부분이 월등히 높은 가중치 점수를 보이며 1위와 2위를 차지한 이유는, 제주해녀춤이 가지고 있는 여성공동체 문화의 가치와 함께 전통문화로서 그리고 살아있는 해녀문화로서 해녀춤의 원형을 해녀굿과 해녀노래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새로운 공연브랜드 개발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 IV. 논 의

본 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영역(대분류)의 종합 우선순위는 해녀춤의 브랜드구축이 중요도가 가장 높은 1순위를 차지했으며, 해녀춤의 가치인식내용, 해녀춤의 기초연구, 해녀춤의 가치인식대상, 해녀춤의 제도적개선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해녀춤의 문화브랜드화에 있어서는 브랜드라 불릴 수 있는 해녀춤의 개발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문화콘텐츠로서 춤의 레파토리 개발을 강조한 김충한(2011)과 이지연(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해녀춤의 정립을 위해서는 해녀춤에 내포된 가치 가운데 내용(여성공동체 문화, 전통문화, 살아있는 해녀문화, 물질문화)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둘째, 브랜드구축의 중분류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의 우선순위는 새롭고 다양한 공연브랜드 개발, 해외 벤치마킹, 조형물·로고 제작, 기존 해녀춤 명칭 변경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옥(2010)은 문화산업의 질적 성장이란 콘텐츠의 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하여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문화콘텐츠산업에 있어 '킬러 콘텐츠'의 개발과 생산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충한(2011)은 한국의 춤이 세계적인 문화브랜드화를 위해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와 적절한 소재로 동시대에 알맞은 동작을 통해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안수민(2016)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자연환경의 아름다움, 청정한 섬 제주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다시 오고 싶고, 오래 머물고 싶은 제주를 만들기 위한 융합적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원혜림(2010)은 대중적이며 보편적 소재에 드라마적 요소를 가미한 작품 개발과 더불어 지속적인 문제점 보완을 통한 완성도 높은 작품 개발에 힘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정송이(2008)는 전문인력들의 장르 혼합을 통한 문화 예술분야의 인력 교류를 통해 참신하고 새로운 작품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해녀춤의 문화브랜드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해녀문화의 정체성을 담은 보편적 드라마 형식의 새로운 공연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가치인식내용의 중분류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의 우선순위는 여성공동체 문화(의식·규범·놀이 등), 전통문화(굿·의례·노래 등), 살아있는 해녀문화, 물질문화(작업기술·도구·옷 등)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녀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돌, 바람과 함께 제주를 상징하는 특별한 존재로서의 제주여성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해녀의 특성상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서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공동체 문화 가치가 해녀춤의 문화브랜드화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보여주고 있다. 김은희, 안병주(2011)는 해녀들의 삶과 함께하는 공동체적 문화의식으로서의 해녀춤을 강조하였다. 특히 해녀춤을 제의, 공동체, 놀이, 갈등해소의 기능으로 구분하여 해녀춤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하였다.

Peggy M(2000)은 자기 성찰적인 배움 공동체의 중요성을 여성공동체문화를 중심으로 강조하며 해녀문화 공동체에서 수세기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상호-배움(co-learning)을 통한 해녀굿 속의 해녀춤과 맥락을 같이 하며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넷째, 기초연구의 중분류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의 우선순위는 해녀굿·노래를 통한 원형 연구, 제주 각 지역별 해녀춤 DB 구축, 해녀 삶을 통한 기본체계 연구, 타분야(인류학·민속학 등)와의 융합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의 모든 문화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무용의 가치를 인식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초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한 정송이(2008)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며 제주의 해녀문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해녀춤의 가치를 인식하기 위한 기초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가치인식대상의 중분류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의 우선순위는 해녀들의 적극적인 의견반영, 지역주민을 위한 공감대 형성, 전문가들과의 진솔한 소통, 외부 관광객을 위한 홍보방안 마련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민현주(2004)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며 안무자와 무용수는 물론 공동작업을 통한 타장르 전문가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김지원(2013)은 한국춤의 브랜드화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강조했고, 강우연(2007)은 한국무용공연의 브랜드화를 위해 대중매체를 활용한 소통방법을 제시하며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무용의 브랜드 구축은 물론 홍보에 있어서도 사람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기본전제로 온라인 그리고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째, 제도적개선의 중분류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의 우선순위는 협회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보유자 및 전수자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전용극장 및 정기공연 추진, 도지정 문화재 추진, 지속적인 예산지원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지원(2013), 이지연(2014), 정길만(2013)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김지원(2013)은 한국춤 문화원형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전통예술의 공공적 가치는 예술가 지원과 무료 상설공연지원으로 시민에게 형평성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며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지연(2014)은 무용중심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정길만(2013)은 국가브랜드 작품을 알리고 명작 무료 승화시키기 위해 전용극장을 통한 상설공연이 필요하다고 보고하며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했다. 일곱째, 제주해녀춤의 문화브랜드화 방안의 중분류 21개에 대한 종합 가중치 및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새롭고 다양한 공연브랜드 개발, 여성공동체 문화, 전통문화, 살아있는 해녀문화, 해녀굿·노래를 통한 원형연구, 해외 벤치마킹, 조형물·로고 제작, 제주 각 지역별 해녀춤 DB구축, 해녀들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 기존 해녀춤 명칭 변경, 해녀삶을 통한 기본체계 연구, 지역주민을 위한 공감대 형성, 전문가들과의 진솔한 소통, 협회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해녀삶을 통한 기본체계 연구, 물질문화, 타분야(인류학·민속학 등)와의 융합, 외부 관광객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보유자 및 전수자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전용극장 및 정기공연 추진, 도지정 문화재 추진, 지속적인 예산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제주해녀춤은 무용전문인들만의 춤이 아닌 제주해녀를 포함한 제주여성의 춤으로 확대하여 제주를 대표하는 새로운 공연브랜드 개발에 주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문화브랜드로서 제주해녀춤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Delphi 기법과 AHP분석을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목적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전문가, 무용 전문가, 그리고 해녀들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Delphi조사와 AHP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해녀춤의 문화브랜드화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류에서는 1순위 '해녀춤의 브랜드구축', 2순위 '해녀춤의 가치인식내용', 3순위 '해녀춤의 기초연구', 4순위 '해녀춤의 가치인식대상', 5순위 '해녀춤의 제도적개선'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중분류에서는 해녀춤의 가치인식 내용에서 '여성 공동체문화(의식·규범·놀이 등)'를 1순위로 평가하였으며, 브랜드구축에서는 '새롭고 다양한 공연브랜드 개발', 제도적개선 부분에서는 '협회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를 1순위로 평가하였다. 가치인식 대상에서는 '해녀들의 적극적인 의견반영'이 1순위로 평가되었고, 기초연구 부분에서는 '해녀굿과 노래 등을 통한 원형 연구'를 1순위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종합적인 우선순위는 '새롭고 다양한 공연브랜드 개발', '여성공동체 문화', '전통문화', '살아있는 해녀문화', '해녀굿·노래를 통한 원형연구', '해의 벤치마킹', '조형물·로고 제작', '제주 각 지역별 해녀춤 DB구축', '해녀들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 '기존 해녀춤 명칭 변경', '해녀삶을 통한 기본체계 연구', '지역주민을 위한 공감대 형성', '전문가들과의 진솔한 소통', '협회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해녀삶을 통한 기본체계 연구', '물질문화', '타분야(인류학·민속학 등)와의 융합', '외부 관광객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보유자 및 전수자를 위한 제도적 방안마련', '전용극장 및 정기공연 추진', '도지정 문화재 추진', '지속적인 예산지원'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을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제주도 어촌계 102곳의 해녀들과 지역주민의 의견에 대한 현장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제주해녀춤의 문화브랜드화를 위한 실제적인 논의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콘텐츠 개발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원소스 멀티유즈(One-Source Multi-Use)를 통해 해녀춤을 활용한 콘텐츠 상품 개발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공연, 뮤지컬, 출판, 애니메이션, 웹툰, 영화, 드라마, 게임, 축제, 대회 등 다양한 장르의 변화와 융합을 통한 '킬러콘텐츠'를 개발하여 제주 고유의 문화원형으로서의 해녀춤이 동시에 이를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해녀춤으로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해녀춤의 문화브랜드화는 단지 문화브랜드 방안 모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주해녀춤의 정체성을 찾고 제주 문화자원으로서 바람직한 보존과 전승을 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가 미비했던 이와 같은 해녀춤의 연구 범위를 넓혀 전시용이나 골동품과 같은 관광 상품 개발만이 아닌 창조적 계승을 위한 다각도의 연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우연(2007). 한국무용공연의 대중브랜드화를 위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영옥(2010). 문화원형을 통한 문화콘텐츠 개발 사례와 공연예술산업 발전 가능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 김은희, 안병주(2011). 제주해녀춤의 사회적 기능과 예술적 특성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 43, 43-54.
- 김지원(2013). 한국춤 문화원형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김충한(2011). 한국춤의 세계적 문화브랜드화를 위한 성공요인과 발전방안.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민현주(2004). 한국 춤의 세계화 방향 및 과제. 한국체육철학회, 12(2), 455-473.
- 백현순(2015). 지역춤 축제의 성공을 위한 문화정책적 과제. 한국무용연구학회, 15-18.
- 손수지(2017). 커뮤니티 댄스 백제춤의 브랜드화와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수민(2016). HCSI융합을 통한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지역브랜드디자인.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경미(2015). 융복합 공연예술 작품분석을 통한 한국춤 문화브랜드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 이송(2007). 국립무용단 코리아환타지를 통해서 본 한국춤 브랜드화 연구. 한국무용연구회, 25(2), 107-135.

- 임상우(2010). 공연예술의 국가브랜드 마케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이지연(2014). 문화컨텐츠로서 한국 현대춤의 가능성과 발전방안 탐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임영순, 맹해양, 배기형(2016). 전통공연예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확보를 위한 전략적 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16**, 88-99.
- 원혜림(2010). 공연예술 성공사례 분석을 통한 현대무용의 문화상품화 개발전략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정길만(2013). 국가브랜드제고를 위한 국립무용단 작품보전과 전승방안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정송이(2008). 문화컨텐츠로서의 한국무용 발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조남규(2010). 한국공연예술시장의 현황과 전망. 한국무용기록학회, **18**, 79-97.
- 최일도, 신윤진, 조성윤(2012). 비인기 영역 공연예술 후원 광고와 브랜드에 대한 문화소비자의 태도 연구. 한국광고홍보학회, **95**, 162-188.
- Peggy, M(2000). A learning community with feminist values.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9-28.

ABSTRACT

---

## A Study on the Cultural Branding Plan of the Dance of Jeju Haenyeo through AHP method

Yang, Jin-Sook *Soonchunh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riorities a cultural branding plan for safeguarding and transmitting the dance of Jeju haenyeo. For that purpose, this study adopted the Delphi method to find out the factors of a cultural branding plan of the dance of Jeju haenyeo, and Analytic Hierarchical Process (AHP) to elicit and analyze the relative importance and the priorities. The data processing for this research has been rooted in the SPSS 20.0, AMOS 24 and Expert Choice 11 program. The conclusions drawn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of a cultural branding plan of the dance of Jeju haenyeo are classified into 5 high group(value recognition content of the dance of Jeju haenyeo, object, basic research, building brand, improving Rule) and 21 middle group. Second, the priority of high group for a cultural branding plan of the dance of Jeju haenyeo was followed by building a brand of the dance of Jeju haenyeo, value recognition content, basic research, object, improving rule of the dance of Jeju haenyeo. Third, the priority of subdivision of cultural branding plan of the dance of Jeju haenyeo was followed by development of new and various performance brands of the dance of Jeju haenyeo, female community culture, traditional culture, living haenyeo culture, research of original form through ritual ceremony·song of Jeju haenyeo, overseas benchmarking, production of sculpture·logo, and establishment database of the dance of haenyeo in each region of Jeju.

**Key words** : Analytic Hierarchical Process (AHP), the dance of Jeju haenyeo, cultural brand, Delphi

---

논문투고일: 2018. 08. 30  
논문심사일: 2018. 10. 15  
심사완료일: 2018. 10. 15